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19, 마태복음 27-28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9회기
마태복음 27-28장입니다.

군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적어도 이 수평 들보를 짊어지기 위해 구경꾼인 구레네
시몬을 징집해야 했습니다.

이제 마가는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Mark의 청중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로마에 편지를
썼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
중 많은 수가 실제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다른
신자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집했습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배경은 어떠하였습니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키레나이카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주변 시골 사람들로 완전히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부
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약 3분의 1의 토착 리비아인, 약 1/3의 그리스인, 약 1/3의
유대인이 그곳에 정착했다고 추정합니다. 나중에 대량 학살로 거의 말살될
때까지 그곳에는 매우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 음, 시몬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족장 이름인 시므온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유대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월절을 위해 여기에 왔다는 사실은 그가 유대인임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이 지역에 정착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가 그 지역에 정착했다면 아마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착했을 것이다.

내 말은, 당신이 반드시 이방인이라면 그곳은 당신에게 가장 친근한 지역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 마리티마 주변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는 그분이 들에서 오십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이라면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유월절 기간에는 밭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인구 과잉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예수께서 일주일 내내 머무르셨던 감람산 베다니에 머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텐트만 치면 되었습니다.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군대에 징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필요하다면 당나귀나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아마 그는 많이 채찍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에게 모든 일을 혼자서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진과는 달리 그는 아마도 들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알몸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구타를 당할 경우에도 알몸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혁명가와 노예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것만큼 끔찍하게 들리는 것은 매우 끔찍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네 목에 달리우고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맷돌이라는 용어는 여자가 작은 절구와 공자로 맷돌로 맷돌로 맷돌로 맷돌로 가는 일반적인 맷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나귀 맷돌이었습니다. 그것은 당나귀가 돌아다니며 맷돌을 돌리고 곡식을 맷돌로 가는 마을의 맷돌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때때로 행했고, 때때로 행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한 죄를 지은 경우에는 뱀, 전갈, 고양이가 담긴 자루를 꿰매어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갈에 쏘였을 것이고, 그런 다음 그것을 테베레 강이나 물에 던져 익사시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양이에게도 그다지 건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처형의 경우 이는 느린 고문에 의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죽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죽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망치를 들고 다리를 부러뜨려 계속 숨을 쉴 수 있도록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옴에 따라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부끄러운 처형 형태였습니다. 느린 고문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채찍질로 인해 이 모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등에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의 앞에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에서 파리를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노폐물을 배설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 그냥 나올 것입니다. 매우 굴욕적이지만 그것이 최악의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혈액 손실을 겪은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이 심한 채찍질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경우, 특히 낮 동안의 탈수로 인한 혈액 손실로 인해 가장 빨리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밤은 추울 수 있지만 낮에는 특히 일년 중 여러 번 탈수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면 결국 질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자세에서는 당신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횡경막이 공기를 폐 속으로 계속 밀어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십자가 바닥에 발을 놓을 작은 받침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발은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종종 죽을 만큼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지지 않지만, 요세푸스는 십자가에 처형될 때 로마인들에게 그의 친구 세 명을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것들을 내려주세요.

이들은 내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들 중 두 명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손상되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집행반은 아직 죄수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갔습니다. 콘투베르니움은 8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분대였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함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 세부정보를 위해 그 중 절반만 전송됩니다. 따라서 이 작업 세부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은 4명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을 수 있는데, 물론 시편 69편에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옷을 위해 제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즐겁게 지내기 위해 관절 뼈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연주한 것 중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옷이 정말 좋은 옷인데, 나누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 제비를 뽑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들끼리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목인 titulus에는 causa peni 가 나열됩니다. 나는 라틴어를 배웠지만 발음을 용서해주세요. 나는 1세기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르고, 오늘날에도 라틴어가 어떻게 적절하게 발음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특정 서클에서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목에는 처벌 사유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다른 십자가에는 처형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태복음에 따르면 쓸개 탄 포도주를 그에게 줍니다. 몰약, 일부 학자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섞으면 수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잠언 31장은 포도주를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태는 의로운 고난의 시편 중 하나인 시편 69편에 대한 암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쓸개 섞인 포도주를 말합니다. 시편 22편과 69편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의로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의로운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 특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때때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 시편의 세부사항 중 일부는 예수의 경우에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이것을 주었지만 예수께서는 진통제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품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심지어 배반한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는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습니다. 이 시편도 이 시편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와인식초로, 와인식초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매우 저렴했다.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마가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다른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4장 3절과 7절에서 사탄의 유혹을 반복하며, 특히 마지막 유혹을 반복합니다. 처음 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십자가 없이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말하는 대로, 만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가 그것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에 관해 말하는 방식은 솔로몬의 지혜(2:18)를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

작품으로 1세기에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는 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부당하게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악인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야기 속에서도 당신 자신의 말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말은 이러한 종류의 말에 익숙한 마태복음의 청중과 같은 사람들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 자기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자신을 구하게 해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옳았습니다. 남을 구원하려면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42절). 그들은 26장 39절과 42절에서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특별한 길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만일 그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백성들의 충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심판은 한 세대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날개 아래로 모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진실을 듣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극적인 표징을 행하시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몇 가지 징조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모델을 보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10시 39분과 16시 25분.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그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시편 22장 1절의 언어로 부르짖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발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부끄러움의 기준에 딱 맞습니다.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편의 문맥을 알고 계셨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시편은 구원의 노래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소외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외침이 옹호로 끝나는 시편에 속한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청중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크에서는 엘로이, 엘로이입니다. 그는 그것을 아람어로 넣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도해야 하며, 확실히 히브리어로 된 시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엘리야후, 엘리야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곤경에 처한 랍비들을 도우러 올 것이라는 강한 유대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곤경에 처한 랍비들을 구하러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그를 곤경에 처한 랍비인 줄 아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는 이제 엘리야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킵니다.

바울이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말하는 사도행전 17장 18절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관해 전파했습니다.

예수와 아나스타시오.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이방 신들, 이방 신들, 복수형을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오스(Anastasios)도 그리스어로 여자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루크의 청중에게 이 사람들이 매우 똑똑하다는 사실을 강화시켜 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들은 단서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엘리야가 예수님의 순교의 선구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약속의 선지자 세레 요한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과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시간과 매우 가깝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몇 가지 방식으로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합니다. 특히 수난 이야기가 정말 잘 알려진 수난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의 많은 세부 사항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보너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위한 주요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을 드릴 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에 대한 후대의 유대인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유월절 전날에는 종일 유월절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필요한 집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에 대한 징조가 예상되었습니다.

이 표징 중 일부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중 일부는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표징을 몰랐거나 마가가 메시아의 비밀 모티브로 인해 일부 표징을 덜 강조했다면 누가도 그 표징을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 시점에서 주로 마가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한 곳에서만 증명된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 번 증명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곳에서만 입증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정말 좋은 친구인데, 그는 이것이 단지 묵시적인 문학적 장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한 죽은 자들은 단지 종말론적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유대 묵시론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등을 볼 때 활용하는데 이 본문의 장르는 묵시록이 아니다.

이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은 랍비 문학, 유대 전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인의 죽음에 대한 예상되는 징후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죽었을 때, 당신은 어떤 징조를 기대할 것입니다. 글쎄요, 마가복음에는 이미 몇 가지 표적이 언급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다른 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가복음에 없다고 해서 마태복음에 그에 대한 출처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튜에게 출처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은 전염병과 비슷합니다.

재앙으로 인한 이집트의 어둠을 포함하여 구약의 심판으로 인해 어둠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유대교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것이 아모스서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오의 어둠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런 어둠이 있게 됩니다. 일부 기독교 저술가들이 인용하는 탈루스라는 이방인 저술가가 있습니다. 탈루스는 일어난 이 일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예수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Thallus는 그 시점에 일식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누가의 언어는 다른 언어의 일식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크조차도 일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구름 덮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식이었다면 탈루스는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 일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인가? 글쎄, 지금은 돌아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탈루스는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수 세기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만 단서가 있습니다. 탈루스도 이것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초기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아주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무덤에서 나오는 죽은 자도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부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무시할 이유가 없다고 방금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합니다. 빈 무덤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재앙, 심판, 종말론, 종말론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형 집행자들은 예수가 죽은 후 가장 먼저 그분의 신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심지어 부활되기 전에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55절에서 66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 한 사람이 십자가를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제자들의 실패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에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남자 제자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위험을 덜 감수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처형될 확률이 낮았습니다. 그들은 남성보다 체포되거나 고문당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있었고, 그래도 지금은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용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쨌든요. 아리마대 요셉은 바늘귀를 통해 성공한 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로마인들은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서 썩게 하고 새들이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일부 이방인 전통에서는 장사되지 않은 사람은 지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는 절단되었다면 새들이 그것을 쪼개어 지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유령이 물 위에만 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견해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유대교는 매장을 요구했습니다. 토라에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 수 있지만 해가 질 때 내려서 묻어두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도 한때 당신의 적들을 매장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죽은 자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묻어도 됩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매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그에게 데려온 이유에 동의했다면, 그가 그것에 동의했다면 시체를 장사해야 한다고 예상되는 지역 대회 에도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때때로 시신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곤 했습니다. 특히 빌라도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에 대해 어떤 말장난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빌라도가 이것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빌라도는 예수가 위협이 된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예수님이 현자와 같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그리고는 나가서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습니다. 로마인들은 다른 많은

철학자들처럼 자신들이 왕으로 통치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었던 냉소적인 철학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왕보다 현명하고 정치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뜻을 내세웠지만, 냉소주의자들이 무해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큰소리로 말했지만 로마인들은 대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날 막 헌정된 새 목욕탕을 비웃는 로마의 냉소주의자에게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한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들은 이 철학자들을 무해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해한 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죠, 왕이시군요. 하지만 이 분은 다른 종류의 왕이십니다.

실용적인 왕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무해한 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체를 넘겨줄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아직 그것을 알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와 동일시될 수 있고 그 자신도 레 마에스타(les maestras)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황제의 위엄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재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를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들은 특히 재산이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용기 있게 시신을 구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년 동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쨌든 그것을 믿었으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낙담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의 무덤이 실체를 지닌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확한 장소를 보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 당신은 고든의 갈보리와 정원 무덤과 그 모든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정확한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것은 19세기에 선의를 갖고 있지만 유형학을 사용하여 두개골의 모양을 알아내려고 노력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두개골이 있는 곳은 두개골 모양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두개골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일지도 모른다.

또한 1세기 이후 예루살렘의 모양, 윤곽,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로 처형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채석장이 있을 뿐 아니라, 성전을 헐고 계곡을 메우는 등 도시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정확한 장소를 보존했을 것입니다.

70년까지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묘지가 바로 그 무덤이건 간에 그 장소와 매우 가깝습니다.

전통은 아주 일찍부터 보존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고려 사항 중 하나는 고고학에 따르면 이곳이 44년에는 성벽 안에 있었지만 30년에는 성벽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 외곽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유대인의 관습이었지만 로마인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처형하고 성벽 밖에 매장합니다. 글썄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4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누구도 이곳이 성벽 안의 예수의 장사지라는 전통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모두가 당신이 죽어 성벽 밖에 묻혔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신약성서에도 성벽 밖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성벽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에 묻히는 전통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은 44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14년 이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아주 초기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다른 장소가 무엇이든 앞서 니들스 아이(Needles Eye)라는 문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언급했거나 나중에 무엇이 되었든 성묘는 아마도 올바른 장소를 보존할 것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의 탄생 동굴과 다른 장소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그것과 유효한 유사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죽어가는 신들과 부활하는 신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때때로 나중에 더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죽어가고 부활하는 신들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절에 따른 부활, 즉 땅에 풍요로움이 돌아오는 봄마다 누군가가 지하 세계에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방인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돌아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자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 무서운 시체가 돌아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사상은 다니엘 12장과 2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것은 유대인의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의 부활,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몸이 어떻게 변형될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 등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떠다니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보았다고 해서 결코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었고, 특히 이방인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 사이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다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첫 번째 제자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주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본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받은 유전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한다. 아주 일찍 돌아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한 한,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시체를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빈 무덤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매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백 명의 증인을 언급합니다. 그는 500명의 증인이 있었고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에 여러 명의 증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리적 발현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것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지 환각일 뿐이라면 일반적으로 동시에 같은 비전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다중 감각으로도 환각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환각일 뿐이라는 가능성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간증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말은, 당신에게는 물문경 같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셉의 계시판인 금판에 대한 최초의 증인 중 일부는 나중에 그들의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연루된 찰스 콜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Richard Nixon에게 매우 충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형량 협상을 받아들이고 아시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순간, 우리 모두는 목을 아끼고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특히 무언가의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공모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마도 그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는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언급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여자의 증언은 별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견해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법에 따른 견해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증언은 도둑의 증언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백 명의 여자의 증언은 한 남자의 증언과 같았습니다. 남성이 없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남자도 있습니다. 로마법에서도 여자의 증언은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여자의 증언은 성별이 경솔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여성이 신뢰할 수 없고 불안정하다는 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입니다. 복음서는 왜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보고합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코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에서 다른 많은 문제들에 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의 지위에 관해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들의 미래 부활을 믿도록 설득하려는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렇게 회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말은,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대된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은 장래에 모든 의인들이 한꺼번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정보다 먼저 누군가가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왕국은 아직은 아닙니다. 미래는 역사로 분해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신약성서는 말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보장해 줍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에 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논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바리새인들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이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이론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역사 속으로 파묻혀버린 어떤 것.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의 정당성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를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다고 전하므로 그들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28장. 나는 맨 처음에 지상 명령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이막스는 많은 모티프를 하나로 묶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 다른 보고서를 봅니다. 대위임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전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무덤에 있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두 번 의뢰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에게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들은 남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경비병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경비병들을 무덤에 배치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비원은 그럴듯하지 않은 보고를 합니다.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도난당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음, 우리는 시체가 도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당신은 경비원이예요.

시체를 도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체가 도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보고서는 실제로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경비원이 유포한 바로 그 보고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튜는 유통되지 않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것이 대안적인 견해라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시체를 훔친 다음 많은 사람들처럼 그 주장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싸하지는 않지만 경비원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과 탐욕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한 마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선택의 여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인들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주의 주님이시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바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서, 뇌물 때문에 욕심을 부리거나 인생에서 앞서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는 파수꾼처럼 될 것입니까? 마태는 지상 명령으로 복음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경비병처럼 되지 말고 여자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9회기 마태복음 27-28장입니다.